



보리/B6변형/164면/4500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아이로 키우는 사랑법

서정홍의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노릇은 해야지요》

이 책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흔하게 부딪치는 상황들에 대한 짝막하고 설득력 있는 지침을 제시한다. “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한 아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느냐”는 게 지은이의 생각이다. 이 책은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바빠도’ 부모들이라도 꼭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양손 가득 조립 장난감이며 요즈음 한창 유행하는 만화영화 캐릭터들의 정보를 망라한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들고 온다. 돈을 준 일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공연히 가슴이 편다. 게다가 아이는 나를 보더니 장난감을 가슴에 싸 안고는 방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잠가 버린다.

‘존중받는’ 아이에서 ‘존중하는’ 아이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이 많고 엉뚱해 예상치 못한 행동을 잘 하는 큰 아이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고집 센 둘째 아이를 키우며 이런 질문에 부딪칠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제일 먼저 펴는 책이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노릇은 해야지요》(서정홍, 보리)다. 1996년 가을에 출간된 이 책은 1997년 큰 아이가 태어난 후에 내가 남편에게 선물했던 책이다.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일’ 한다고 믿는 남편을 제대로 된 아버지로 바꿔보자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지만 책을 사 놓고는 정작 남편보다는 내가 더 자주 꺼내 보게 되는 책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교육을 위한 지침서들은 적지 않지만 이 책이 눈에 띈 것은 “일하는 아버지를 위한 자녀교육 이야기”라는 점. ‘일하는 사람의 관점’이란 세상의 꺾대가 되는 것이 아니던가. 지은이는 10년 넘게 생산현장을 지킨 노동자로 이 책을 출판할 당시는 노동상담소에서 일하며 시집을 두 권이나 낸 시인이었다.

이 책에서는 부모들이 흔하게 부딪치는 상황

들에 대한 지침을 짝막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데, 이런 지침들의 한결같은 원칙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한 아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느냐”는 게 지은이의 생각이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훌륭한 아이로 키우는 것은 흔한 육아 지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는’ 아이로 키우는 지은이의 ‘아름다운’ 생각은 이 책을 더 빛나게 한다. 그래서 아이 방의 문을 열 때는 노크를 하고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용돈을 줄 때도 사용처를 꼬치꼬치 묻지 말며 깨끗한 새 돈으로 바꿔 봉투에 넣어 주자는 지은이의 제안이 생뚱맞지 않다. 생일에는 발도 씻어주고 업어도 주고 꼭 필요한 선물도 사주면서 나쁜 버릇 한가지 정도 고쳐보게 하자는 이야기도 좋다.

지은이는 자신의 가훈 ‘천천히, 분명하게 걸어가자’처럼 남을 짓밟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가되 원칙을 지켜가며 사는 모습을 보이기를 요구한다. 지은이가 제안하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 요리 배우기, 수수께끼 맞추기, 우스운 이야기 들려주기, 전자제품 손질하기, 컴퓨터 배우기, 끝말잇기, 다림질과 바느질 배우기, 줄넘기 배우기, 화분에 거름주기... 언뜻 하찮은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을 아이와 함께 하면 10분을 한시간만큼 알차게 쓸 수 있다.

좋은 아버지는 좋은 이웃이고 좋은 시민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따의 가치를 소중

히 여기는 아버지라면 시장도, 공사장도, 목욕탕도 모두 훌륭한 교육장소다.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고 작은 것을 사랑할 줄 알며 남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닮는다”

이 책이 여느 자녀교육 지침서와 또 다른 점은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을 때면 나는 늘 이 대목에서 심장이 퍽 멎어버리는 듯하다. 지은이는 또 말한다. “한 번 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아까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이들과 뜻 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베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 책을 꺼내 들 때는 늘 아이들 행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다. 하지만 책장을 덮으면서 나는 늘 문제가 나에게 있었음을 아프게 절감하게 된다. 내 아이가 남보다 앞서기를 바라고 내 편리와 이익을 먼저 구하고 아이에게 마음껏 자유를 주기보다는 내 통제 아래 뒤야 안심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곤 한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닮는다”는 지은이의 말들에 새기듯 가슴에 지니고 살리라 마음먹으면 서도 생활하다보면 또 있다. 내가 이 책을 볼 때마다 새롭게 감동하고 또 자주 꺼내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박남정(자유기고가)